

##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모두의 모습으로 ...

We are born again...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본 협회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유상열 건설교통부 차관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과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협회가 있기까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본협회를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할뿐 아니라, 건축사법에 의한 협회 창립30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건축개혁을 이룩하려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의 발전이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듯이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그야말로 불모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건축사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혼신을 다해 피와 땀을 쏟으며 조국건설에 이바지해 온 결과, 오늘에 이르러 세계화를 지향하는 막강한국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동안 성장위주의 건설과정에서 양적 생산에 휩쓸린 나머지, 오늘날 다소의 역기능 현상으로 그간의 공적이 빛을 잃고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 건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양질의 설계와 엄정한 공사감리로 국가건설과 건축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건축계는 밖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선진 여러나라들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고, 안으로는 또다시 세계화를 빙자한 건설업체들의 설계업진출 기도의 거센바람을 막아야하며, 더욱이 도서신고제도 개편 등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속히 최선의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가혹한 시련에 봉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같은 시련의 원인은 우리가 기존의 보호망 속에서 편안히 안주하려는 생각으로, 미래에 닥쳐올 상황변화에 미리미리 대비하는데 소홀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냉철한 반성과 가일층 미래대비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 건축계의 목소리는 하나이어야 함에도 건축 3단체의 엷힌 위상관계로 각 단체의 상이한 목소리이다. 특히 우리 내부 개개인의 이기적인 다양한 목소리에 휩싸여 협회는 마치 회원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회원을 대변하고 아픔을 함께 해야할 협회가 대외적으로 전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음을 우리는 다시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분명 반성의 거울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미래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더이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으로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같은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협회는 회원을 대변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거듭나는 협회로 나아가기 위해, 본인은 나를 버리는 작업을 마다않고 작년 12월 27일을 기해 40여명의 각계각층 회원들로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동안에 걸쳐 건축전반의 문제에 대한 개혁작업의 대장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건축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거듭나는길을 찾기 위해 개혁추진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뒤로 하고 오직 세계화 속에 우리 건축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업을 마무리한 건축개혁안을 오늘 대의원 여러분 앞에 제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개혁추진위원회와 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무작업에 임하여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께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축개혁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 건축계의 온갖 문제점을 찾아 청산하고, 모든 건축인이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한국건축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다음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건축계에 산재한 구시

대적 발전모델을 미래지향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세계화의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전진시키는 일입니다. 개혁과 전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작업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한국건축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개혁안은 그동안 개혁작업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견해들의 열띤 토론끝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양화된 오늘날의 현실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공통점을 도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역사적 개혁대열에 우리 모두 흔쾌히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내부적 힘의 결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천여명에 달하는 전회원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으는 협력체제의 구축이라 하겠습니다. 견실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개혁은 미래가 약속된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세계화를 향한 한국건축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협회와 본인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대열의 맨앞줄에서 세계화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협회와 함께 한국건축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로이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한국건축의 세계화로 향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끝으로, 대의원 여러분의 성원속에 오늘의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5. 3. 29